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메타양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ta-Parenting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한유미*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Han, You M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struct of meta-parenting or a superordinate category of effortful cognition, including anticipation, assessment, reflection and problems. Also, it aims to analyse meta-parenting in terms of demographic variables and investigate how it relates to other cognitions on parenting and parenting behaviors. One hundred seventy three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were surveyed on Hawk's (2007) Meta-Parenting, Sameroff and Feil's (1985) Concepts of Development, Stipek, Danniels, Galluzzo, & Milburn's (1992) Activities Sub-scales. They also commented on their views of appropriate methods of child-rearing and the starting age of extra-curricula activity and the number of extra-curricula activitie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Mothers showed the highest score on assessment followed by anticipation, reflection and problems while these four components of meta-parenting were highly correlated to each other. Among demographic variables, only the mothers' age and education were linked to some component of meta-parenting. Meta-parenting was correlated with complexity of thinking but not with views on appropriate methods of child-rearing. Also, meta-parenting was associated with formal and informal activities at home and the beginning time of providing the extra-curricula activity with the total number of extra-curricula activities provided at present.

Keywords : meta-parenting, complexity of thinking, childrearing, mother

I. 서론

부모는 자녀가 발달하는 환경을 통제하는 힘이 있으며 (Parke *et al.*, 2003),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단계(Furman & Buhrmester, 1992) 및 발달이 일어나는 맥락(Furstenberg *et al.*, 1999)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부모의 사고는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신념(Sigel & McGillicuddy-DeLisi, 2002), 태도 및 가치(Holden & Buck, 2002), 기대 및 지식(Goodnow, 2002)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

어 왔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인 다양한 유형의 부모의 인지를 측정,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대개 인간을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 사고를 수정하는 능동적인 감각형성(sense-making) 존재로 보는 정보처리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Berk, 2001).

최근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 인지의 또 다른 유형으로 메타양육(meta-parenting)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메타 기억', '메타논리' 등 심리학 용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접두사 '메타(meta)'가 사고에 대한 고도의 인식과 계획적인 접근을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타양육 역시 자

* Corresponding author: Han, You Me
Tel: 041-560 8134, Fax: 041-560-8101
E-mail: hanyum@hoseo.edu

녀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의도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것으로서(Hawk & Holden, 2006), 자신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생각(Vlach, 2005), 자녀 또는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의 생각, 자녀 및 자신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의도적인 사고(Merrifield, 2009)로 정의된다.

Merrifield(2009)에 의하면, 부모가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양육성공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부모는 자신감에 더해 자신의 양육과 자녀의 발달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모는 언제 자녀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언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인식해야 하며,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을 위한 전략을 개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전략을 사용할 때 부모는 전략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성공을 위해 계획의 조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의도적이며, 자녀의 발달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믿고(양육효능감), 자신의 양육에 대해 생각하고자 노력할 때(메타양육) 양육성공이 일어나므로 양육효능감과 메타양육은 성공적인 양육을 위해 함께 요구되는 인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Merrifield는 메타양육은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추구하는 바와 결국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메타양육은 부모로 하여금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한 원리를 가정이라는 독특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타양육은 자녀를 위해서 뿐 아니라 성인(부모) 발달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Goodnow, 2002; Merrifield, 2009).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Holden과 Hawk(2003)도 메타양육을 자동화된 인지 과정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인지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자동화된 인지 과정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쉽게 변화하기 어렵지만, 메타양육은 의식적, 의도적이며, 통제가 가능한 인지 과정으로서 쉽게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 하여금 부모자녀관계를 변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Bugental *et al.*, 1997).

나아가 이들은(Holden & Hawk, 2003; Hawk & Holden, 2006) 부모의 인지에 관한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메타양육을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념화했다. 예상(anticipating)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녀양육의 측면에 관한 의도적 고려를 말하는 것으로 예상을 통해 부모의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가 구성되고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기어 다니기 전에 미리 가정에 아동용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Morrongiello & Kiriakou, 2004)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적금을 들어주는 것 등이 해당한다. 두 번째 요인인 평가(assessing)의 핵심은 자녀, 부모 자신, 맥락에 대한 부모의 평가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보이는 공격성이 정상적인 발달 현상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요인인 반성적 사고(reflecting)는 자신 및 자녀의 행동이나 과거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부모의 재평가를 말한다. 일례로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양육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양육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과거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부모에게 양육을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Fongay *et al.*, 1991; Heath, 2000). 마지막 요인인 문제해결은 문제의 규명, 해결책의 계획과 실행, 결과의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부모의 사고를 말한다(Crick & Dodge, 1994). 예를 들어, 자녀의 난독증을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하게 메타양육을 양육 계획 또는 정신적 지도로 규정하면서 Nicholson *et al.*(2008)은 자녀의 욕구에 적절한 반응(responding), 해로운 상황 예방(preventing), 발달에 대한 영향 점검(monitors), 자녀발달 멘토링(mentoring), 적절한 행동의 모델링(modeling) 등의 요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Nicholson *et al.*(2008)의 5 요인은 Holden과 Hawk(2003)의 메타양육 요인과 중복,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메타양육 과정은 보편적인 양육 문제이든(예, 영아가 우는 이유를 진단하는 것; Holden, 1988) 특수아동의 부모에 관한 특수한 이슈이든(예, 발달장애아의 심각한 의사소통 손상 등 장애; Bristol *et al.*, 1988) 양육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메타양육과 양육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awk과 Holden(2006)의 연구에서 메타양육 중 문제해결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방치 및 과잉반응(예, 고함)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을 통해 자녀 관련 이슈를 규제하는 부모들은 방치와 과잉반응의 역치 사이에서 훈육반응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규제를 함을 시사한다. 반성적 사고 역시 과잉반응과 부적 관련이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반성적 사고는 과잉 반응과 정적 관계

가 있었다. 이는 반성적 사고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묘한 것으로서, 과거의 사건과 행동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문제를 규명하고 미래의 상호작용을 예상하고 새로운 효과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소득 없이 반추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모들도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Hawk(2007)의 연구에서 메타양육은 권위가 있는 양육방식, 효율적인 양육, 자녀와의 온정적인 관계, 자녀의 공격성 등의 변량을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메타양육의 문제해결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와 상관이 있었으며, 예상은 온정적 관계 외에도 적은 부상 횟수, 낮은 공격성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예상이 갈등을 감소시키고 아동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에 순탄한 통로를 만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Morrongiello & Kiriakou, 2004). 이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온정적 부모자녀 관계의 예측인자가 안정적인 성인 애착이나 주의력(mindfulness) 등 상호작용의 감수성(interaction receptivity)이 아니라 메타양육으로 밝혀진 것인데, 이는 메타양육이 일상적인 인지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식적 또는 자동적 사고를 넘어서서 온정적인 관계를 촉진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Bargh, 2006). 이러한 결과는 험난했던 초기 인생 경험에 의해 역기능적 도식을 형성한 부모일지라도 메타양육을 변화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양육실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Nicholson *et al.*(2008)의 연구도 메타양육이 양육행동의 적절성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다. 메타양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나 메타양육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는 덜 적극적인 양육형태이므로 메타양육과 관계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 메타양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명확한 정체감을 갖고 있었으며, 영아기와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Vlach(2005)의 연구에서도 메타양육 수준이 높을 때 전반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유능감과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메타양육은 부모의 극단적 혹은 역기능적인 양육실체를 감소시키고(Arnold *et al.*, 1993), 효율적인 양육실체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자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등 메타양육 요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이러한 메타양육 요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는 것도 있으며, 부모들 간에 전체적인 메타양육 빈도는 개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된다(Hawk & Holden, 2006; Hawk, 2007). 부모의 다른 인지와 마찬가지로 메타양육도 부모, 자녀, 환경 등의 특성에 의해 유발될 것이라는 관점에서(Bugenthal & Johnston, 2000) 연령, 학력, 직업 지위, 거주 지위, 자녀의 수와 연령 및 성별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Hawk & Holden, 2006; Hawk, 2007; Nicholson *et al.*, 2008; Vlach, 2005)뿐 아니라 지능(Hawk & Holden, 2006), 아동발달에 관한 조망적 사고(Hawk, 2007), 양육경험(Holden, 1988; Vlach, 2005),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Nicholson *et al.*, 2008), 부부간의 양육분담(Merrifield, 2009) 생활스트레스(Hawk & Holden, 2006) 등이 메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Hawk과 Holden(2006)의 연구에서 부모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메타양육과 예상, 평가를 많이 제공하며, 자녀수가 적을수록 문제해결을 많이 사용하고, 딸보다 아들에게 예상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나 부모의 연령과 학력은 메타양육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이에 비해 Nicholson *et al.*(2008)는 부모의 연령과 학력은 메타양육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고, 인구통계변인과 메타양육 간의 관계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 연령이 되기 전이나 학교를 마치기 전까지는 부모가 되기를 의식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이미 메타양육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역으로 이러한 인구통계 변인 또한 메타양육의 질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구통계 변인들은 메타양육의 선행요인 혹은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통계 변인뿐 아니라 양육경험도 메타양육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Holden, 1988)와 없다는 결과(Vlach, 2005)가 있으며, 지능에 대해서도 메타양육에는 논리적 사고를 위한 인지적 성숙과 평균 이상의 지능이 요구된다는 연구(정계숙 외, 2003; Hohen & Hawk, 2003)와 메타양육과 지능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Hawk & Holden, 2006)가 공존한다. 또한 자녀의 행동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 자녀를 독특한 욕구를 지닌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 조망적 사고를 하는 부모들은 융통성 있는 사고로 인해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Miller-Loncar

et al., 2000; Sameroff & Feil, 1985; Vazquez, 2004) 에도 불구하고 Hawk(2007)의 연구에서 아동발달에 관한 조망적 사고와 메타양육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발견되었다. 이상과 같이 메타양육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타양육 중 개별 요인(반성적 사고)에 초점을 둔 연구(노진형, 2005; 정계숙, 노진형, 2006; 정계숙 외, 2003)가 소수 이루어졌을 뿐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등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메타양육을 접근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메타양육의 일반적 경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메타양육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메타양육이 여타의 양육관련 사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메타양육에 따라 실제로 어머니들이 어떠한 양육관련 행동을 나타내는지 밝힘으로써 메타양육의 중요성을 입증할 것이다. 양육관련 사고로는 아동의 행동이 여러 요인들에 결정되었음을 이해함으로써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Sameroff와 Feil(1985)의 아동발달에 관한 조망적 사고와 기존의 보육시설 지원 위주의 기존의 정책 맥락에서 최근 부모의 양육선택권 강화를 위해 양육수당이 도입된 현실에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였다. 양육관련 행동으로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형식적, 비형식적으로 제공하는 활동뿐 아니라 현재 조기교육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어머니들이 제공하는 사교육 개수와 사교육 시작 연령을 주요 변수로 삼았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는 아직까지 학술적 차원에서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메타양육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적 차원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메타양육의 일반적 경향 및 메타양육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가?

둘째,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메타양육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메타양육과 다른 양육관련 사고(조망적 사고, 이상적인 양육방법에 관한 견해)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메타양육과 양육관련 행동(어머니의 양육행동, 사교육 활동)간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173명이다. 유의표집 한 보육시설 4개 기관에 25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고, 193부가 회수되어 약 77%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부실 기재 질문지 무응답을 제외한 17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구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만 34.63세(범위 21~45세)이었고, 학력은 대졸이 96명(6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이하(20.7%), 대학원 졸(8.7%), 전문대 졸(6.7%)의 순이었다. 취업여부별로는 전업주부(46.7%)보다 취업모(53.3%)가 많았는데, 이는 영아전담 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이 표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가족 소득은 평균 360만원(범위 80~1,700만원)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73)

		F(%)	M(S.D)
연령		21~45 ^a	34.63(3.57)
학력	고졸 이하	31(20.7)	
	전문대졸	10 (6.7)	
	대졸	96(64.0)	
	대학원 이상	13 (8.7)	
취업여부	전업주부	57(46.7)	
	취업모	65(53.3)	
월 평균 가족 소득		800,000~17,000,000 ^a	360.33(196.93)
자녀수	1명	84	
	2명	44	
	3명	5	

^a: 범위

2. 연구도구

1) 메타양육

본 연구에서 메타양육은 Hawk(2007)의 Meta-Parenting Questionnaire(MPQ)로 측정했다. Hawk(2007)의 척도는

원래 예상(Anticipating, 5문항), 평가(Assessing, 6문항), 반성적 사고(Reflecting, 6문항), 문제해결(Problem Solving, 7문항) 등 총 24 문항으로 구성된 Hawk과 Holden(2006)의 Meta-Parenting Profile Questionnaire(MPQ)를 각 요인별로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수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아이가 지루해질 것을 알고 미리 계획한다(예상)”, “아이의 발달 정도를 또래와 비교해서 생각한다(평가)”, “양육행동 또는 부모로서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걱정한다(반성적 사고)”, “내가 계획한 문제해결전략을 끝까지 고수한다(문제해결)” 등이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자녀가 아니라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만을 대상으로 응답해야 하며, 각 문항은 “전혀 안한다”에서 “항상 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많을수록 메타양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전체 신뢰도 α 는 .89, 요인별 신뢰도는 예상 .70, 평가 .76, 반성적 사고 .80, 문제해결 .73로 나타났다.

2) 양육관련 사고

(1) 조망적 사고

조망적 사고는 Sameroff와 Feil(1985)이 아동 발달에 관한 이슈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인지적인 추론의 복잡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Concepts of Development Questionnaire(CODQ)의 조망적 사고(perspective thinking) 영역(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이를 기르는 데에는 옳은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와 같은 진술문에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 4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조망적 사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α 는 .68로 나타났다.

(2) 이상적인 양육방법에 대한 견해

이상적 양육방법에 관한 견해는 영아의 이상적인 양육방법에 대한 어머니들의 견해를 묻기 위해 이정원, 이운진(2008)이 제작한 문항을 연구자가 영아와 유아의 경우로 문항을 나누어 사용했다. 영아와 유아의 경우 각기 “가정에서 부모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부모가 키울 필요는 없으나 가정에서 1:1 개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 높은 보육시설이 있다면 기관에서 다른 아이와 함께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보기 중에서 어머니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부모양육은 1점, 개별보육은 2점, 시설보육은 3점을 부여하여 통계분석 시 서열척도로 처리하였다.

3) 양육관련 행동

(1) 형식적 비형식적 활동

어머니의 양육관련 행동 중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동에게 직접 제공하는 형식적·비형식적 활동은 Stipek *et al.*(1992)의 Activities Sub-scales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형식적 활동(예, 가게에서 샀거나 집에서 만든 플래시 카드나 학습지를 사용하여 글자나 읽기를 가르친다)과 비형식적 활동(예, 상 차릴 때 식기류를 세게 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수를 가르친다)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전혀 안함’(1점)에서 ‘거의 매일’(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활동 빈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혀 안함’에서 ‘일주일에 6~7회’로 척도를 수정했다. 신뢰도 α 는 형식적 활동은 .80, 비형식적 활동은 .83이었다.

(2) 사교육 활동

본 연구에서 양육관련 행동의 또 다른 차원으로 사용한 사교육 활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정규 유아교육 기관 외에 가정방문 학습지나 학원, 문화센터 등 사교육 활동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시기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교육 활동의 수로 정의했다. 사교육 활동 시작 시기와 현재의 사교육 활동 개수는 모두 개방형 질문을 통해 측정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자 2인의 자문으로 일부 번역이 어색한 문장과 내용이 애매한 지시문 등을 수정한 후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측정도구의 문항이해도를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도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해당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질문지를 전달한 후 보육시설의 협조로 아동 편에 질문지를 배부, 수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3.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등간척도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 서열척도와 메타양육의 관계는 Spearman 상관관계로 분석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메타양육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과 추후 검증으로 Duncant-test를 이용했다.

Ⅲ. 연구결과

1. 메타양육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메타양육 및 각 요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기술통계를 구한 결과 메타양육 평균 문항은 평균 3.56으로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메타양육 요인에 따라 평균을 살펴볼 때에는 평가 요인 문항의 평균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상($M=3.60$), 반성적 사고($M=3.56$), 문제해결($M=3.27$)의 순을 보이고 있었다.

<표 2> 메타양육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73)

	M(SD)	순위
예상	3.60(.75)	2
평가	3.79(.81)	1
반성적 사고	3.56(.82)	3
문제해결	3.27(.70)	4
전체	3.56(.63)	

*** $p<.001$

또한 메타양육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표 3>과 같이 메타양육의 모든 요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메타양육의 각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표 3> 메타양육의 요인별 상관관계 (N=173)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예상	1.00			
평가	.56***	1.00		
반성적 사고	.52***	.68***	1.00	
문제해결	.50***	.52***	.52***	1.00
전체	.79***	.85***	.84***	.77***

*** $p<.001$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메타양육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과 첫 자녀 연령(양육경험), 자녀 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메타양육을 일원변량분석 한 결과 <표 4>와 같이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만 메타양육의 일부 요인(예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의 경우 메타양육의 총점 및 모든 요인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점수

가 낮은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예상 요인에서만 있었다. 추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한 결과 예상 요인의 경우 연령이 가장 낮거나($M=3.78$)이나 중간인 집단($M=3.73$)보다 높은 집단($M=3.37$)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학력의 경우에는 전문대졸과 대학원 졸의 사례 수가 각기 10명과 13명에 불과하여 고졸 및 전문대 졸과 대졸 및 대학원 졸의 두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메타양육 총점 및 모든 요인에서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역시 예상 요인에서만 발견되었다. 즉, 저학력 집단($M=3.44$)보다 고학력 집단($M=3.73$)이 예상 요인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외에 어머니의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과 해당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첫 자녀의 연령(양육경험), 총 자녀 수 등에 따라서는 메타양육의 어떠한 요인이나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메타양육의 일원변량 분석 (N=173)

		메타양육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전체
연령	32세 미만 (n=37)	3.78 (.69) ^b	4.06 (.78)	3.64 (.83)	3.39 (.71)	3.72 (.65)
	33~36세 (n=76)	3.73 (.69) ^b	3.80 (.70)	3.62 (.72)	3.26 (.66)	3.60 (.56)
	37세 이상 (n=41)	3.37 (.81) ^a	3.81 (.84)	3.54 (.90)	3.17 (.79)	3.47 (.66)
	F	4.13*	1.62	.17	.96	1.56
학력	전문대졸 이하 (n=41)	3.44 (.67)	3.78 (.79)	3.46 (.75)	3.18 (.86)	3.46 (.64)
	대졸 이상 (n=96)	3.73 (.75)	3.90 (.78)	3.66 (.80)	3.32 (.65)	3.65 (.60)
	F	4.55*	.73	1.21	.62	1.06

* $p<.05$

3. 어머니의 메타양육과 양육관련 사고의 관계

어머니의 메타양육이 아동발달에 관한 조망적 사고 및 이상적인 양육방법에 관한 견해 등의 양육관련 사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와 Spearman 상관관계를 실시했다. 아동발달에 관한 조망적 사고의 경우 등간척도이므로 Pearson 상관관계가 사용가능했으나 이상적인 양육방법에 관한 견해는 순위척도로 Pearson 상관관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Spearman 상관관계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표 5>와 같이 메타양육은 이상적인 양육방법에 관한 견해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

〈표 5〉 메타양육과 양육관련 사고간의 상관관계 (N=173)

		메타양육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 해결	전체
양육 관련 사고	아동발달에 관한 조망적 사고	.04	.22**	.23**	.13	.19**
	양육방법에 대한 견해 ^a					
	영아	-.04	.01	.04	.05	-.00
	유아	-.02	.01	-.07	.03	-.00

^a: Spearman의 rho
**p<.01

었으며, 아동발달에 관한 조망적 사고의 총점 및 일부 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즉, 아동발달에 대해 복잡한 사고를 하는 어머니일수록 전반적인 메타양육 수준이 높았고($r=.19, p<.01$), 특히 평가($r=.22, p<.01$) 및 반성적 사고($r=.23, p<.01$)의 수준이 높았다.

4. 어머니의 메타양육과 양육관련 행동의 관계

어머니의 메타양육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직접 자녀에게 행하는 형식적, 비형식적 활동과 자녀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제외한 사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한 시기 및 사교육의 개수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Pearson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형식적 활동은 메타양육의 평가($r=.19, p<.05$), 반성적 사고 요인($r=.17, p<.05$), 총점($r=.17, p<.05$)과, 그리고 어머니의 비형식적 활동은 메타양육의 모든 요인($r=.41, r=.36, r=.26, r=.26, p<.001$) 및 총점($r=.40, p<.0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가 현재 제공하는 사교육의 개수는 메타양육의 어떠한 요인과의 관련이 없었으며, 사교육 제공 시작 시기는 메타양육의 평가($r=-.27, p<.05$), 문제해결 요인($r=-.28, p<.01$) 및 총점($r=-.26, p<.05$)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6〉 메타양육과 양육관련 행동 간의 상관관계 (N=173)

		메타양육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 해결	전체
양육 관련 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형식적 활동	.12	.19*	.17*	.03	.17*
	비형식적 활동	.41***	.36***	.26***	.26***	.40***
	사교육 행동					
	사교육 개수	.09	.06	.00	-.05	.04
	사교육 시작 시기	-.18	-.27*	-.12	-.28**	-.26*

*p<.05, **p<.01, ***p<.0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부모인지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된 메타양육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대상으로 메타양육의 일반적 경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메타양육이 양육관련 다른 사고 및 양육관련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메타양육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으며, 메타양육의 하위요인별로는 평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과 반성적 사고였으며, 문제해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 어머니들은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한 평가는 많이 하는 반면, 문제의 규명이나 해결책의 계획 및 실행, 결과의 평가 등을 위한 의식적 노력은 덜 함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미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Hawk & Holden, 2006; Hawk, 2007)에서는 점수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모두 예상, 평가, 문제해결, 반성적 사고의 순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특히, 반성적 사고의 평균이 자기 2.43(Hawk, 2007)과 2.78(Hawk & Holden, 2006)로 다른 메타양육 요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제해결 요인조차 3.27이었다는 결과와 대조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 간의 차이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어머니들보다 과거에 자녀가 보인 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 또는 양육과 관련하여 자신이 내린 결정 등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다시금 평가하는 경향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머니들의 메타양육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음을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또한 과거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Fongay et al., 1991; Heath, 2000) 우리나라에 비해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서구 어머니들에게는 척도의 본연의 의미와 다르게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메타양육 요인들 간의 상호상관관계의 경우에도 미국 어머니들은 반성적 사고와 문제해결(Hawk, 2007) 또는 반성적 사고와 문제해결, 평가와 문제해결 등을 제외한 요인들 간에 상관이 나타났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

되었다. 이는 자녀에게 닥칠 상황을 미리 계획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발달이나 행동을 평가하려고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보였던 행동이나 어머니 자신의 양육행동을 재평가하며, 자녀의 문제를 규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함을 뜻한다. 따라서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등은 서로 중복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Vlach, 2005) 메타양육이라는 효율적인 양육을 위한 의도적인 사고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들의 메타양육 수준은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즉,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족의 월평균 소득, 해당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첫 자녀의 연령, 총 자녀 수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해당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어머니들의 메타양육의 차이가 없는 것은 어머니들은 활동 수준이 높은 남자와 언어 능력과 자기규제 기술이 덜 발달한 어린 연령의 자녀에게 높은 메타양육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Berk, 2001; Holden, 1988)과 상반된 결과로서, 현재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소자녀화 추세와 양성평등 사상의 확산으로 아들과 딸에 따른 차이 및 차별이 거의 사라진 실태(조복희, 한유미, 2008)와 해당 자녀의 연령이 어릴 경우 발달특성상 보다 높은 메타양육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육 경험(년 수)의 부족이 메타양육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개별 자녀를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의 수와 메타양육의 문제해결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Hawk와 Holden(2006)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메타양육의 어떠한 요인도 첫 자녀의 연령이나 총 자녀의 수처럼 양육경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변인과 연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경험 즉,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를 오랜 기간 양육한 것(첫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Holden, 1988), 이 경우 문제해결과정이 더 자동화되어 의식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거나(Bargh, 2006), 동시에 여러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자녀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메타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과 학력으로 연령이 낮거나 보통인 어머니들과 학력이 대졸 이상인 어머니들의 메타양육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예상 요인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연령과 학력은 메타양육과 정적 상관이 있

다는 Nicholson *et al.*(2008)의 연구와 일부는 일치하고 일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특정 연령이 되기 전에 부모가 되기를 의식적으로 미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메타양육을 의미한다는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의 메타양육 수준이 높아야 하지만,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표집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에서는 10대 임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사고나 행동이 일반 어머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에서는 만혼과 출산 연기 추세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연령 역시 30대 초반에 집중되어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대상 어머니들보다 좁은 연령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외에도 연령이 높은 어머니들일수록 체력상의 이유나 혹은 순위 자녀의 존재로 인해 해당 자녀 및 해당 자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메타양육 수준이 학력이나 조망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연령이나 양육경험에 의한 자연적인 성숙보다는 학력이나 조망적 사고 등 인지적 성숙에 의해 메타양육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메타(meta)’라는 개념 자체가 사고에 대한 고도의 인식과 계획적인 접근을 의미하며, 메타양육의 정의 역시 자동화된 인지 과정이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인지 과정이라는 점(Hawk, 2007)이나 메타양육에는 논리적 사고를 위한 인지적 성숙과 평균 이상의 지능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정계숙 외, 2003; Holen & Hawk, 2003)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해준다.

셋째, 어머니의 메타양육은 다른 양육관련 사고와 일부 관련이 있었다. 즉, 아동발달에 관해 조망적인 사고를 하는 어머니일수록 전반적인 메타양육의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평가 및 반성적 사고의 수준이 높았다. 선행연구(Miller-Loncar *et al.*, 2000; Vazquez, 2004)에 의하면, 조망적 사고 수준이 낮은 경우 사건에 대해 신속하지만 잘못된 반응을 유도하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성급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조망적 사고 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자녀가 개별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며,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 지시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에 비해 조망적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

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 자녀를 특별한 욕구를 지닌 개별적인 존재로 보며, 이러한 융통성 있는 사고로 인해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아울러 조망적 사고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민감성 및 반응성(Miller-Loncar *et al.*, 2000)과 지지적 또는 민주적 양육행동(Bond & Burns, 2006; Vazquez, 2004)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메타양육과 조망적 사고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동발달에 관한 조망적 사고가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Labouvie-Vief & Diehl, 2000; Roskam, 2005)나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메타양육이 어머니의 학력과 긍정적 관련이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두 가지 사고 유형 즉, 조망적 사고와 메타양육은 학력이라는 요인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부모교육이나 상담에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들의 사고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반적으로 메타양육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형식적, 비형식적 활동과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연령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메타양육 중 평가 및 반성적 사고를 많이 하는 어머니일수록 학습지나 플래시 카드 등 구조화된 매체를 이용한 형식적 활동을 많이 제공했던 반면 일상생활을 통한 비형식적 활동은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등 모든 메타양육 영역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메타양육 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형식적 활동이든 비형식적 활동이든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함을 의미하지만 형식적 활동보다는 비형식적 활동을 더 많이 함을 시사 하는 결과로서, 메타양육이 권위가 있는 양육방식, 효율적인 양육, 자녀와의 온정적인 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Hawk, 2007; Nicholson *et al.*, 2008).

이에 비해 메타양육은 어머니가 현재 해당 자녀에게 제공하는 사교육의 개수와는 관계없고, 사교육 시작 시기와 부정적 관계가 있었다. 메타양육과 사교육 개수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메타양육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일찍부터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결과는 메타양육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중심적인 양육행동 및 발달에 적합한 교육실제(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상에 어긋나는 결과로서

메타양육과 양육실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제공하는 사교육 활동만을 다루었는데 최근에는 어머니가 개별적으로 사교육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특별활동의 형식으로 사교육을 경험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기관의 사교육 제공 여부 및 제공 정도를 통제해서 표집을 하거나 어머니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사교육 활동과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경험하는 사교육 활동의 개수를 각각 측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개수와 사교육 시작 연령만을 포함하고 사교육 소요 비용은 제외되어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사교육 소요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어머니의 메타양육 요인 중 어머니의 형식적 활동과 비형식적 활동, 사교육 시작 시기 등 3가지 양육관련 행동과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유일한 요인은 평가였다. 즉, 자녀 및 자녀양육에 대해 평가를 많이 하는 어머니일수록 가정에서 어머니 자신이 형식적 활동과 비형식적 활동을 모두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자녀에게 사교육도 일찍 시작시키고 있었다. 또한 평가는 메타양육 요인 중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이기도 하다. 이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 문화의 잔재와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더불어 자녀를 자신의 연장으로 보고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관계지향적인 우리나라 문화에 일부 원인이 있을 것을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결혼으로 상실된 자아실현에 대한 일종의 대리성취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Kim & Choi, 1994), 이러한 어머니들일수록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의 발달 수준이나 능력을 또래와 빈번히 비교하며 어머니 자신이 자녀에게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 활동을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사교육도 일찍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메타양육은 자녀 및 자신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의도적인 사고 과정으로서 예상, 평가, 반성적 사고, 문제해결 등의 서로 중복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메타양육은 연령과 학력 등 인지적 수준이나 양육과 관련된 또 다른 사고인 아동발달에 관한 사고의 복잡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 자신의 양육행동이나 사교육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아동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 차원에서 부모의 사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그 동안 주로 자동화된 사고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보다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사고인 메타양육의 중요성을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질문지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행동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를 탐색 행동은 평가나 문제해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Hawk & Holden, 2006). 나아가 메타양육과 자녀의 발달단계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연령을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메타양육이 이후의 양육행동을 예측하고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메타양육과 양육 둘 다를 종단적으로 측정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메타양육, 조망적 사고, 양육, 어머니

참 고 문 헌

- 노진형. (2005). 반성적 사고 중심의 모자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지체유아 모자에 대한 적용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원, 이윤진. (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14(4), 79-105.
- 정계숙, 이은하, 고은경. (2003). 부모-자녀 놀이치료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기보고에 나타난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반성과 그 의미. *아동학회지*, 27(6), 13-34.
- 조복희, 한유미. (2008).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자녀의 가치와 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85-93.
- Arnold, D. S., O'Leary, S. G., Wolff, L. S., & Acker, M.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37-144.
- Bargh, J. A. (2006). What have we been priming all these years? On the development, mechanisms, and ecology of nonconscious social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2), 147-168.
- Berk, L. E. (2001). *Child Development*(6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 Bond, L. A., & Burns, C. E. (2006). Mothers' beliefs about knowledge, child development, and parenting strategies: Expanding the goals of parenting program.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7(6), 555-571.
- Bristol, M. M., Gallagher, J. J., & Schopler, E. (1988). Mothers and fathers of young developmentally disabled boys: Adaptation and spousal support.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41-451.
- Bugental, D. B., & Johnston, C. (2000). Parental and child cognitions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315-344.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Furstenberg, F. F., Cook, T. D., Eccles, J., Elder, G. H., & Sameroff, A. (1999). *Managing to Make I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Fonagy, P, Steele, M., Steele, H, Moran, G. S., & Higgitt, A. C. (1991). The capacity for understanding mental states: The reflective self in parent and child and its significance for security of attach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2(3), 201-218.
- Goodnow, J. J. (2002). Parents' knowledge and expectation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3: Being and Becoming a Parent*(2nd Ed.).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wk, C. K., & Holden, G. W. (2006). Meta-parenting: An initial investigation into a new parental social cognition construct. *Parenting*, 6(4), 321-342.
- Heath, H. (2000). *Using Your Values to Raise Your Child to Be an Adult You Admire*. Seattle, Washington: Parenting Press.
- Holen, G. W., & Hawk, C. K. (2003). Meta-parenting in

- the Journey of Childrearing : A cognitive mechanism for change. In L. Kuczynski(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pp. 189-210).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Hawk, C. K. (2007). *The Social-Cognitive Underpinnings of Effective Caregiv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Holden, G. W. (1988). Adults' thinking about a child-rearing problem: Effects of experience, parental status,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59, 1623-1632.
- Holden, G. W., & Buck, M. J. (2002).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pp. 537-562). Mahwah, New Jersey: Erlbaum.
- Kim, U., & Choi, S. (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A Korean perspective. In P. M. Greenfield., & R. R. Cocking(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nt*.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bouvie-Vief, G., & Diehl, M. (2000). Cognitive complexity and cognitive-affective integration: Related or separate domains of adult development? *Psychology and Aging*, 15(3), 490-504.
- Merrifield, K. A. (2009). *Marital and Coparenting Qualities: Associations with Parenting Cogni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 Miller-Loncar, C., Landry, S. H., Smith, K. E., & Swank, P. R. (2000). The influence of complexity of maternal thoughts on sensitive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 responsiven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335-356.
- Morrongiello, B. A., & Kiriakou, S. (2004). Mothers' home-safety practices for preventing six types of childhood injuries: What do they do, and wh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9(4), 285-297.
- Nicholson, J. S., Howard, K., & Borkowski, J. G. (2008). Mental models for parenting: Correlates of metaparenting among fathers of young children. *Fathering*, 6(1), 39-61.
- Parke, R. D., Killian, C. M., Dennis, J., Flyr, D. J., McDowell, S. S., Kim, M., & Wild, M. (2003). Managing the external environment. In L. Kuczynski (Ed.),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 Child Relations*(pp. 247-270).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 Roskam, I. (2005). A comparative study of mothers' beliefs and childrearing behaviour: The effect of the child's disability and the mother's educational level.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0(2), 139-153.
- Sameroff, A. J., & Feil, L. A. (1985). Parental concepts of development.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83-105).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Sigel, I. E., & McGillicuddy-DeLisi, A. V. (2002). Parent beliefs are cognition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Being and Becoming a Parent(2nd ed.*, pp. 485-508). Mahwah, New Jersey: Erlbaum.
- Stipek, D., Daniels, D. Galluzzo, D., & Milburn, S. (1992). Characteriz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for poor and middle-class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1), 1-19.
- Vazquez, A. (2004). *Mothers' and Fathers' Complex Experiences, Complexity of Thinking about Children, and Parental Functioning: Does Stress Moderate the Associ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Vlach, J. L. (2005). *Meta-parenting in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North Texas.

접수일 : 2009. 12. 01.

수정완료일 : 2009. 12. 23.

게재확정일 : 2010. 01. 04.